

‘설욕 도전’ 윤중현 “올해는 다시 일어서는 시즌”

KIA타이거즈 선수단 을사년 출사표

TIGERS “작년보다 더 안 좋아질 수는 없죠. 올해는 자리를 깨달 때까지 피투기는 경쟁을 펼쳐보겠습니다.”

KIA타이거즈 마운드의 마당쇠로 활약했던 윤중현이 다시 존재감을 발휘할 준비를 마쳤다. 최근 두 시즌 간 부상과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ABS) 등의 영향으로 고전했지만 올해는 불박이 불펜 자원으로 재도약하겠다는 각오다.

윤중현은 최근 전남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시즌보다 안 좋을 수는 없다. 계속해서 잠깐 1군에 올라갔다 내려가고, 팀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이번 시즌은 1군에 오래 붙어 있고 경기에도 많이 나가고 싶다. 투수로서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진입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스트라이크 비율이 35.06%에 그쳤다. 사이드암 투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ABS의 특성을 극복하지 못한 모양새였다. 윤중현 뿐만 아니라 김대유와 김민주, 박준표, 임기영 등 팀 전반적으로 모두 고전했다.

윤중현은 “ABS를 많이 의식했다. 잘 던졌다고 생각한 공이 한두 개 스트라이크로 안 잡히다 보면 많이 흔들렸다”며 “지난 시즌 중반에 코너 워크보다 높은 존에 최대한 강하게 던지는 패턴으로 바꾸면서 구속이 많이 올라왔다. ABS 존도 조금 내려오니까 더 좋아질 것 같다”고 언

21·22시즌 마운드 마당쇠 역할 최근 2년간은 부상 여파로 고전 로봇 심판 약점 극복 추가 과제 올해 불박이 불펜 재도약 목표

급했다.

ABS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불 배합도 새로운 구상을 가져간다. KBO 리그에서 사이드암 투수 중 사실상 유일하게 ABS를 이겨낸 KT위즈의 우규민을 참고했다.

윤중현은 “각도가 큰 커브나 슬라이더가 ABS 존에 걸리게 던지면 타자들에게는 한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정구로 사용할 수 없다”며 “우규민 선배님이 짧은 커터 느낌을 많이 던지셨다. 슬라이더를 커터 느낌으로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등을 위해서는 마음가짐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한 시즌 내내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스스로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중현은 “올 시즌은 확실하게 마음을 다잡고 가야 한다. 비시즌에 (정)해영이를 보면서 멘탈적인 부분을 많이 배웠다”며 “현실적인 목표보다 더 높은 꿈을 꾸게 됐다. 30세이브를 할 수 있는 선수라면 40세이브를 목표로 잡아야 하고, 책임감에 대해서도 느꼈다”고 말했다.



KIA타이거즈 윤중현이 지난해 5월2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 홈경기에 구원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특히 윤중현은 초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 전력에 가세했던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 직후의 자세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다.

그는 “항상 밑바닥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사회복무를 마치고 나자마자 자의 마음가짐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마인드로 처음부터 해보겠다. 최선을 다해 경쟁하고, 잊혀지지 않고 뒤쳐지지 않는 선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언제나 가장 큰 변수는 부상이다. 윤중현은 프로 데뷔 후 가장 많은 경기

를 소화했던 2022시즌 막바지 타구에 손을 맞고 유구골 골절을 당한 뒤 최근 두 시즌 동안 부상에 신음했다.

그는 “올 시즌에는 아프지 않고 싶다. 힘이 붙은 만큼 부상 위험이 크다고 하지만 관리를 잘하겠다”며 “건강만 유지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피투기는 불펜 경쟁이 되겠지만 마지막 한두 자리에라도 끝까지 도전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윤중현은 역경을 딛고 일어나게 해준 동료들과 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2

년여를 부상과 부진에 신음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를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단연 응원이다.

그는 “지난해 8월에 대전에서 투 아웃을 잡고 네 점을 줬다. 이렇게까지 안 되나, 이제 야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동료들의 위로에도 정말 힘들었다”면서도 “팬들의 메시지를 보고 프로 선수가 이런 걸로 그만 둘 생각을 하는 게 맞나 싶어서 마음을 다잡았다. 정말 위로가 됐고, 큰 영향이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규빈 기자

‘전면 무효’ 제4대 광주시농구협회장 선거 파행

운영위원회서 재선거 결정 상위 기관 유권 해석 불복

제4대 광주시농구협회장 선거가 파행을 겪고 있다. 불공정 시비 끝에 상위 기관인 대한농구협회 등의 유권해석에 따른 투표인단 시정 조치로 선거를 치렀지만 선거운영위원회가 결과를 무효 처리하고 재선거를 결정,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광주시농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제4대 회장 선거에 대한 무효 및 재선거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선거에서는 배영종 전 부회장이 21표를 얻어 배준태 광주시농구협회 전무이사(19표)를 2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하지만 탈락한 배준태 전무이사가 선거일 전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선거권이 배제됐다는 이유로 협회 선거운영위원회에 선거 효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선거운영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광주시농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결정문에 “광주시체육회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진행을 위한 중립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특히 “두 차례 공문을 통해 생활체육 지도자의 투표인단 제의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선인 인준 제한과 관리 단체 지정, 지원금 중단, 감사 등 조치를 예고했다”며 “이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쳐 공정

한 진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는 투표 전부터 잡음이 지속됐다. 선거인단 배정 규정 위반과 불공정성, 선거일정 등으로 인해 공정한 선거참여 기회 박탈과 후속 분쟁의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종목 단체 선거를 관리 및 감독할 의무가 있는 광주시체육회는 대한농구협회에 의뢰해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생활체육 지도자는 투표인단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고, 광주시농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와 양 후보자는 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광주시농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배영종 전 부회장에게 당선증만 교부했을 뿐 당선인 공고와 인준 요청 등 후속 절차를 일체 진행하지 않았고, 낙선한 배준태 전무이사와 일부 생활체육 지도자의 이의를 받아들여 상위 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특히 상위 기관의 유권 해석에 반하는 재선거 절차마저 기탁금 반환과 후보자 등록, 선거인 명부 작성 등을 생략하고 일부 투표인단 수정만 거쳐 28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체육회는 “종목 단체 회장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됐다. 광주시체육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및 감독을 하는 입장”이라며 “선거가 종료된 뒤 이의 제기 여부와 별개로 당선인 공고와 인준 요청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

‘압도적 득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4선 성공

182표 중 156표… 득표율 86% 허정무 15표·신문선 11표 그쳐

정몽규 제52·53·54대 대한축구협회장이 축구인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결선 투표 없이 4선을 확정 지었다.

정 회장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다목적 회의실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개표 결과 182표 중 156표를 득표하며 임기를 4년 더 연장하게 됐다.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와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은 각각 15표와 11표에 그치며 결선 투표조차 열지 못했다. 이들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막아야 했지만 정 회장은 85.7%를 독식했다.

정 회장은 이로써 2013년 1월부터 역대 최장인 16년간 대한축구협회를 이끌게 됐다. 1993년부터 2009년까지 대한축구협회장을 맡았던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록이다. 이번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국제 대



정몽규 제52·53·54대 대한축구협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다목적 회의실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 4선에 성공한 뒤 당선증을 교부받고 있다.

연합뉴스

회 성적 부진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진행돼 접전이 예상됐다. 하지만 결과는 정 회장의 압승이었다.

정 회장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꾸준히 축구 외교에 나섰고, 후보 중 유일한 기업인으로서 행정에 밝다는 점도 표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2031 AFC 아시안컵과 2035 FIFA(국제축구연맹) 여자 월드컵 유치전에 나설 전망이다. 정 회장은 이번 선거 공약으로 두 대회 유치를 비롯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방식 재정립과 집행부 인적 쇄신 등을 내걸었다.

한규빈 기자

광주FC, 포항전 내달 22일로 일정 변경

2024-2025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16강에 진출한 광주FC의 리그 경기 일정이 조정됐다.

홈 앤드 어웨이로 치러지는 16강에 충분한 휴식이 보장돼 파이널 스테이지 도

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다음달 9일 오후 4시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광주FC와 포항스틸러스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4라운드 경기가 다음달 22일 오후 4시30분 같은 장소에서

키오프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해 11월 2024년도 제5차 이사회를 통해 ACLE와 ACL2, FIFA(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 등 국제 대회에 참가하는 구단을 지원하기 위해 상대 구단 동의 없이 직권으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한규빈 기자